3대 위기 극복에 '온 힘' 광주 9대 대표산업 육성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산업 성장·기업유치 확대" 정주-교육-일자리 체계 구축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완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시킨 해였다"면서 "오는 2024년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의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위기, 대유위니아 발 산업위기, IMF 이후 최대 재정위기 등 '3대 위기 극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뭄위기는 공직자의 사전비상행동과 시민들의 절수로 극복됐고, 대유위니아 발 산업위기는 적극행정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신청 26일만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재정위기는 적극재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 예산절감 노력 등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 극복해 가고 있다.

여기에 국가지원을 명시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헌정 사상 최다 의원(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 18년 최대 난제였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전방일방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미래차 중심도시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또 복합쇼핑몰 3종 세트 본궤도,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구축·AI영재고 설립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속도, 지방 최초 순환선을 통한 최상의 교통복지 초석을 마련한 도시철도 2호선의 2단계 구간 착공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문제를 풀어냈다.

2024년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더 즐기기 좋고,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만든다.

산업은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를 양날개로 9대 광주대표산업을 키워 미래경쟁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광주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활용하는 실증도시로 강화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3순환도로 추진, 제2순환도로 학운IC·지원IC 확장공사로 상습정체구간 해소,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경전선 개량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높인다.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부터 조선대 일원을 시작으로 광주시 전역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광주형 안심길도 매년 대폭 늘린다.

또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즉시 할인'과 정부 K패스를 확대한 생애주기 맞춤 할인·환급이 주된 내용인 대중교통요금 통합할인제도인 광주패스(G-패스)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주-교육-일자리'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므로, 인공지능(AI)·창업 인재양성 사다리에 더해 지역 산업·기업의 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단계별 인재양성사다리를 완성한다.

기존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민간투자 등을 활성화해 다양한 청년 주거공간 등을 조성하고 원도심 및 도시 유휴공간을 대학에 내어줘 도시 캠퍼스 사업들을 지역대학들과 협력해 인재양성과 지역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시민 체감이 큰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어린이병원 사업은 지속해 확장한다.

내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중위소득 85% →90%, 긴급돌봄 100%→120%) 수가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질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강화해 고독사 없는 광주로 만든다.

강 시장은 "광주는 늘 한걸음 먼저 앞장서 왔다. 시대정신과 항상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며 "내년에도 광주의 새로운 길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내년 9조원 국고 큰 성과 무안공항 활성화에 전력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제행사 흥행 "글로벌 전남" 첨단전략·관광문화 산업 발전 "무안과 군공항 소통에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원 규모의 국고 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갑진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올해 핵심 도정 성과로 내년 9조원 규모의 국고예산 달성을 꼽았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올해 국제행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에는 방문객이 평소보다 120만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됐고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4000억원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으로 국제 관광도시 면모를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해남·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진도 대파버거, 고흥 유자·나주 배 음료 등 로코노미 흥행 선도 △김, 전복, 유자 등 농수산식품 수출 5억8000만 달러 역대 최대 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전라선 SRT 운행 △목포~무안남악·오룡신도시 간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대도약 전남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지방시대 분야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최대 100억원 돌파 등으로 지방시대 중심지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대합의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외로운 결정'이라는 평가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많은 분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격려해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고, 도민을 믿고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무안군과 같이 도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므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원이 확보됐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공항도 증액이 된 만큼, 앞으로 활성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